

話頭, methods of practice, the process of maintaining the feeling of doubt 疑情, obtaining a source of power 得力處, and their positions on Enlightenment.

Keywords

Gao-Feng 高峯, *Chanyao*(*Seon yo*) 禪要, Dahui(Daehye) 大慧, Dahui's *Letters*(Daehye's *Letters*) 書狀, Kanhua(Ganhwa) 看話, the feeling of doubt 疑情, obtaining a source of power 得力處

✉ 투고일자 2013.10.31 | 심사일자 2013.11.30 | 게재확정일자 2013.12.3

佛典 常用詞의 詞義 분석*

—『緇門警訓』에 나타난 見과 象·像·相 등을 중심으로

안재철
제주대학교 교수

I. 서론

II. 본론

1. 象, 像, 相

1) 象

2) 像

3) 相

2. 見과 相

1) 見

2) 相

3) 見分과 相分

III. 결론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하였음.

요약문

어떤 漢字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사용되는 글자는 없다. 즉 字形은 물론이고, 字音과 字義조차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사용되는 뜻만이 수록된 옥편을 참고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오역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見(/jiàn/, /xiàn/)과 象(/xiàng/) 像(/xiàng/) 相(/xiàng/, /xiàng/) 등이 佛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 바르게 번역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흔히 ‘見’을 단순히 ‘보다’라고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많은 경우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즉 ‘見’은 본래 ‘보다’라는 뜻이었던 것이 引伸되어 ‘解得하다’나 ‘드러나다’라는 動詞로 사용되거나, ‘見解’라는 뜻의 名詞로 사용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動詞의 앞에 쓰여 被動을 표시하기도 하며, 受事者를 指示하여 人稱代詞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結果補語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見’과 ‘相’은 그 本義가 모두 보는 것과 관련되는데, ‘見’이 사람의 발 위에 그 사람의 눈을 그려 主觀을 나타내는 반면, ‘相’은 나무라는 대상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 客觀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객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람의 認識 밖에 존재하는 事物 자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外境에 존재하는 사물 자체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 마음속에 맺혀진 ‘相’이 인식대상이 되는 것이다. 本考에서는 外境에 존재하는 것과 인식대상이 되는 것을 각각 ‘象’, ‘像’, ‘相’으로 분리하여 그것이 지시하는 것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本義, 引伸義, 主·客觀, 見, 相, 象, 像

I. 서론

어떤 漢字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사용되는 글자는 없다. 즉 字形은 물론이고, 소리와 의미조차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흔히 오늘날 사용되는 뜻만이 수록된 옥편을 참고로 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오역하게 된다.

예를 들면, 『道德經』에서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專氣致柔 能嬰兒乎 『道德經 10章』

[들뜨는] 魄과 [가라앉는] 魄[의 기운]을 [몸에] 싣고 [그 기운들을] 하나로 아울러, [둘로] 나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기를 오로지하고(相和하게 제어하고) 부드러움에 이르게 하여, [기운을] 갓난아기처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는데, 위의 ‘載營魄抱一’에서 “營, 魄也. 神也(營은 魄이며, 神이다)”라는 注를 따라 ‘營’을 ‘魄’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알 수 없다.¹⁾

『說文解字』의 설명에 따르면,

營 市居也²⁾ 从宮 熒省聲

營은 ‘둘러싸 거주하다’라는 뜻이다. [뜻은] 宮을 따르고, [소리는] 熒이 생략된(營) 소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營’은 ‘熒省聲’으로서 소리는 ‘熒’을 따랐으며, ‘熒’은 ‘불이 피고 있는 장작을 겹쳐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불꽃과 관련된다.

또 오늘날 중국에서는 묘의 봉우리 위에 집을 짓기도 하는데, 그것은 死者의 육체에 해당하는 ‘魄’은 묘의 땅 속에 있지만, 死者의 정신에 해당하는 ‘魂’은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오므로, 그것이 사는 집으로 삼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몸’은 집의 모양이고, 불꽃으로 化한 ‘魂’이 사는 집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道德經』이 쓰일 당시에는 아직 ‘魂’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아 ‘營’으로 그 글자를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또, 『道德經』에

1) 王弼 注 “營魄, 人之常居也.(營魄이란 사람이 항상 거처하는 곳이다)”에 따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으나, 박세당의 『신주도덕경』에서 “營, 魄也. 神也(營은 魄이며, 神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라 ‘營’은 ‘魄’과 대비가 되는 ‘魂’으로 해석한다.

2) 『說文解字』에는 “市居也”라고 쓰여 있으나,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 따라 고쳤다.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傾 聲音相和 前後相隨 『道德經 2章』
 그러므로 有無는 서로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주고, 김
 과 짧음은 서로 모양을 드러내주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고, 聲(자연
 의 소리)과 音([인간의 소리])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뒤
 따른다.

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有無’, ‘難易’, ‘長短’, ‘高下’, ‘前後’ 등은 모두 反義詞라고 할 수 있으나, 유독 ‘音聲’은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同義詞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것의 本義를 살펴보면 서로 對立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聲(聲/*聲)³⁾’은 타악기(聲)를, 손에 막대를 들고 때려서(攷), 그 소리를 귀(耳)로 듣고 있는 모양을 그린 것으로 原音의 소리를 말하고, ‘音(*音/音)’은 입에 혀가 그려져 있어서 혀에 의해 변질된 소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오늘날 외국어를 배울 때는 發音연습을 하는데, 그것은 혀의 위치에 따라 폐에서 나온 소리가 변질된 것이요, 노래를 할 때는 發聲연습을 하는데, 그것은 폐에서 나온 原音의 소리가 혀에 의해 변질되지 않은 소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쓰고 있는 漢字는 옥편의 뜻으로만 해석하면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緇門警訓』 등의 佛典에 쓰이는 모습과 관련된 글자를 골라 中國言語學의 관점에서 그것의 本義와 引伸되고 假借되어 늘어난 많은 뜻들을 살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3) 각각 甲骨文과 金文, 小篆의 순으로 밝혀져, 찾을 수 없는 것은 ‘*’로 표시한다.

II. 본론

아래에서는 먼저 ‘象, 像, 相’ 등의 용법을 살펴 그것이 지시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 뒤에서는 그것에서 특히 ‘相’을 ‘見’과 대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象, 像, 相

모습에 관한 단어는 사전에 의하면⁴⁾,

形象: ① 形狀 ② (~하다) 마음 속에 떠오른 관념 따위를 어떤 표현 수단으로 구상화(具象化), 또는 그 구상화한 모습

形相(狀): (물건이나 사람의) 생긴 모양

이라고 하고 있고,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⁵⁾

形象/形像: 명사, ①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유의어는 形狀, 形相)

② [철학] 마음속에 떠오른 관념 따위를 어떤 표현수단에 의하여 구상화함. 또는 그렇게 구상화된 모습.

形狀: 명사, 물건의 생김새나 상태. (유의어는 形象, 形相, 形容)

形相: 명사, ① 물건의 생긴 모양. (유의어는 相, 形象, 形狀, 形容) ② [철

4) 이기문 감수, 『동아 새 국어사전』(서울: 동아출판사 편집국, 1995년 5쇄), p 2264.

5)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92521&q=%ED%98%95%EC%83%81> (검색일자: 2013.7.21)

학] 대상을 이루는 재료인 질료에 대하여 그 겉모양이나 형태를 가리키는 개념.

위를 통하여 우리는 ‘물건의 생김새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形狀’, ‘形象’, ‘形像’, ‘形相’ 등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것들이 佛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典籍에서도 사전과 같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本考에서는 象, 像, 相과 같은 詞(단어)의 本義와 引伸·假借되어 생긴 詞義(단어의 의미)들을 살펴서, 그 쓰임이 고정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⁶⁾

1) 象

‘象(象/象/象)’은 『說文解字』에 따르면,

象 長鼻牙 南越大獸 三季一乳 象耳牙四足之形 凡象之屬皆从象

象은 긴 코와 긴 이가 있는 南越(남월) 일대에 사는 커다란 짐승이다. 3년에 한번 새끼를 낳는다. 귀와 상아와 네 다리를 그린 형상이다. 무릇 象에 속한 것은 모두 象을 따른다.

6) 狀은 『說文解字』에서 “犬形也. 从犬尪聲. 盈亮切(개의 모양이다. [뜻은] 犬을 따르고 [소리는] 尪聲이다. [反切은] 盈亮切이다.)”라고 하였고, 段玉裁는 “犬形也”에 대하여 『說文解字注』에서 “犬形也. 引伸爲形狀. 如類之引伸爲同類也.(개의 모양이다. 引伸되어 形狀이라고 하며, 마치 類가 引伸되어 同類가 된 것과 같다.)”라고 하여, 필자가 象, 像, 相 등과 같이 변천된 詞義를 파악할 수 없어서, 本考에서는 제외하고, 혹 나중에 생 각이 정리되면 보충하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象’의 本義는 ‘코끼리’라고 할 수 있다. 또 『韓非子』에 의하면,

人希見生象也 而得死象之骨 案其圖以想其生也 故諸人之所以意想者 皆謂之象也 (『韓非子』「解老」)

사람들은 산 코끼리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코끼리의 뼈를 얻으면, 그 그림을 참고하여 살아있는 것을 상상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바를 모두 象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여, 사람들은 산 코끼리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코끼리’라는 本義로부터 ‘상상하다’라는 뜻이 인신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상상하는 행위’는 ‘모르는 것을 모방하는 행위’이며, ‘모방하는 행위’는 유사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방하다’, ‘유사하다’ 등의 뜻으로 인신되었다고 할 수 있고, ‘유사한 것’은 곧 ‘물건의 생김 모양이나 상태’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形象’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現代漢語에서도 ‘象’은 名詞로 ‘코끼리(象牙, 盲人摸象)’, ‘어떤 사물의 모양, 形象(氣象, 表象, 印象, 現象)’, 動詞로 ‘模倣하다, 본뜨다(象形字)’ 등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⁷⁾ 따라서 일반적으로 ‘象’은 ‘코끼리’와 外境에 존재하는 것인 ‘現象’ 등의 뜻으로 모두 쓰인다고 할 것이다.

7)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ckw000134870&q=%E8%B1%A1> (검색일자: 2013.7.22)

‘象’은 그 本義가 ‘코끼리’라는 뜻이었던 것이 引伸되어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한 글자가 많은 뜻으로 쓰여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글자를 만들어 쓰거나, 다른 글자를 가차하여, 각각의 글자로 하여금 어느 하나의 뜻만을 담당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像’, ‘相’을 들어 本考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象’이 쓰이는 예를 佛典⁸⁾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

將欲成時 生兜率天 號 普明菩薩 盡彼天壽 下閻浮提 現乘白象 入母右脅
(『緇門警訓』序文 禪林妙記前序)

장차 [불도를] 이루고자 할 때에 兜率天에 태어나 普明菩薩이라 호칭하시고, 그 天壽를 다하시고 閻浮提에 내려 올 새, 흰 코끼리를 타고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것을 드러내시니라(보여주시니라.)

其母摩耶 夢懷白象 梵仙 占曰 「若夢日月 當生國王 若夢白象 必生聖子」
(『緇門警訓』序文 禪林妙記前序)

그의 어머니 摩耶부인이 꿈에 흰 코끼리를 품으시니 梵仙이 점을 쳐서 이르기를, 「만약 日月을 꿈꾸었으면 응당 국왕을 생산할 것이요. 만약 흰 코끼리를 꿈꾸었으면 반드시 聖人을 생산하리라.」 하였는데,

위는 釋迦牟尼 부처님의 탄생이야기로 白象은 흰 코끼리이다.

8) 『緇門警訓』은 여러 시대 여러 지방에 살았던 선사들의 글을 모은 것으로, 어느 한 시거나 한 지방의 방언이 아니므로, 주로 그것을 인용한다.

天台·智顓禪師 佛法龍象 童眞出家 戒珠圓淨 年將耳順 定水淵澄 因靜發慧 …(『緇門警訓』護法 晉王受菩薩戒疏)

天台 智顓禪師는 佛法 중의 龍象이라, 童眞으로 출가하였는데, 戒律이 구슬마냥 원만하고도 깨끗하고, 나이가 막 예순이 되었을 때, 禪定의 물결이 연못 마냥 깊고 맑으며,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겨나고, …

香積廚中好用心 五湖龍象在叢林 (『緇門警訓』雜錄 諸賢頌句)

선원의 부엌 안에서는 험사리 정성스런 마음을 쓸 수 있으니, [이것은] 五湖의 龍象(훌륭한 스님)이 총림 속에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龍象’은 梵語 ‘那伽’의 譯語로서, 龍은 물에서, 코끼리는 육지에서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智行을 겸비한 聖者나 高僧을 죽은 뒤의 용이나 코끼리의 위력에 비유한 말이다.

따라서 위에 나열된 ‘象’은 모두 ‘코끼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象’은 ‘코끼리’라는 뜻 외에도, 마음 밖의 外境에 존재하는 것인 ‘現象’ 등의 뜻으로 쓰이는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緇門警訓』에서는 ‘現象’의 뜻으로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었다.⁹⁾

佛敎思想에서는 外境에 존재하는 個體는 實在하지 않고 단지 因緣

9) 佛典을 찾으면 ‘萬象’이라고 쓴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禪要』에서는 한 번은 ‘萬像森羅’라고 표기하고, 한 번은 ‘萬象森羅’로 표기하고 있으며, 『六祖壇經』에서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高峰스님 자신이 한 번은 ‘萬象’으로 한 번은 ‘萬像’으로 써서 스스로 혼동하였거나, 전하는 사람이 혼동한 것이고, 또한 『六祖壇經』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것들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에 의해 잠시 보여 지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에 해당하는 글자로 ‘象’을 쓸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마음 밖에 있는 것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色’, 귀로 듣는 것을 ‘聲’, 코로 맡는 것을 ‘香’, 입으로 맛보는 것을 ‘味’, 몸으로 느끼는 것을 ‘觸’, ‘意’로 말미암아 감지하는 것을 ‘法’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2) 像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佛典에서는 몇몇 잘못 쓰이거나 혼동된 것을 제외하면 ‘象’이 本義인 ‘코끼리’로만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象’은 ‘코끼리’라는 本義로부터 ‘상상하다’라는 뜻이 인신되었고, 다시 ‘모방하다’, ‘유사하다’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象’은 ‘코끼리’, ‘상상하다’, ‘模倣하다’, ‘유사하다’, ‘形狀, 形象’ 등의 모든 뜻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글자가 많은 뜻을 나타내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뜻들을 다른 글자로 나누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모방하다’라는 뜻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면, 그것이 肖像畫와 같은 그림이건, 佛像과 같은 물체가건, 모방품은 ‘像’이 전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像(*/* 𠄎)’은 『說文解字』에 따르면,

像 象也 从人 从象 象亦聲 讀若養

像은 닮은 것이다.人を 따르고 象을 따른다. 象은 또한 소리도 나타내며, ‘養’과 비슷하게 읽는다.

라고 하였으며, 甲骨文이나 金文에는 보이지 않는다.

즉 ‘像’은 甲骨文이나 金文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秦나라 이후에 비로소 생긴 글자라고 볼 수 있다.

‘像’은 ‘人’과 ‘象’을 따르는 會意字이며, ‘象’은 원래 想像의 동물로 죽은 코끼리의 뼈를 통하여 산 것을 미루어 짐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像’은 사람들이(人) 상상의 동물인 코끼리(象)를 類似하게 짐작하는 것을 뜻하므로 ‘비슷하다’가 그 本義라고 할 수 있다.

現代漢語에서도 名詞로 ① ‘[인물을, 혹은 인위적으로] 본뜬 형상, 본떠 그린 모양’, ② ‘거울 따위에 반사 혹은 굴절되어 형성된 상’, ③ 動詞로 ‘닮다, 비슷하다, ...와 공통점이 있다, 그럴듯하다’, ④ ‘마치 ...와 같다’ ⑤ 形容詞로 ‘어울리다, 적합하다’ 등으로 쓰이고¹⁰⁾, 副詞로 ‘마치, 흡사’ 등으로 쓰인다.

따라서 ‘像’이 생겨난 후에는, ‘像’은 ‘象’에서 분화되어 오직 ‘실체가 아닌 본떠서 비슷하게 된 복사물’을 가리키는 것을 전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像’이 『緇門警訓』 등의 佛典에서 쓰이는 예를 들어 살펴 보겠다.

清香一炷 紅蓮數枝 口勿輟誦 意勿他思 安禪禮像 其則勿虧 量衣節食 其志勿移 (『緇門警訓』警訓 慈雲式機主書紳)

한 심지의 맑은 향과 수 가지의 붉은 연꽃으로, 입으로는 [경전의] 암송

10)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ckw000134917&q=%E5%83%8F> (검색일자: 2013년 7월 22일)

을 그치지 말며, 마음으로는 달리 생각하지 말지니라. 편안히 참선하고 불상에 예배하되, 그 법칙은 이지러뜨리지 말며, 의복을 헤아리고 음식을 절약하되, 그 뜻은 옮기지(바꾸지) 말지니라.

帝御行殿 在寺南門 佛舍利·經·像 置於道西 (『緇門警訓』護法 漢顯宗開佛化法本內傳)

황제의 어행전은 절의 남쪽 문에 두었고,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 및 불상은 길의 서쪽에 안치하였다.

此理幽奧 非聖 莫知 聖雖云亡 影像 斯立 名佛寶也 (『緇門警訓』雜錄 住持三寶)

이 교리는 그윽하고도 오묘하여 성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인지라, 성인은 비록 돌아가셨다고 말하나 眞影과 형상(불상)이 이에 세워졌으니 '불보'라 이름 부르니라.

唐·武宗 毀除寺像 道士趙歸眞 率劉玄靖 同力謗誣 (『緇門警訓』雜錄 右街寧僧錄三教總論)

당나라 무종이 사찰과 불상을 헐어 제거한 것은, 도사 조귀진이 유현정을 인솔하여 힘을 합쳐 [불법을] 비방하며 [사문을] 무교하였고,

위에 나열한 '像'은 모두가 결국 '佛像'을 뜻한다. '佛像'이란 부처님의 모습을 부처님과 비슷하게 복사한 것이므로 '像'은 '모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逮漢明 感夢金軀日佩丈六之容 一如釋迦本狀 …… 爰及浮江石像 泛海瑞容 般若冥力 觀音密驗 別記具之 事多不錄 (『緇門警訓』序文 禪林妙記前序)

한 나라 明帝에 이르러, 금색 몸에 햇빛을 두른 一丈六尺의 모습에 감응하여 꿈꾸었는데, 하나같이 석가의 본 모습과 같으니라. ……강으로 떠내려 온 石像과 바다로 떠내려 온 [관음보살의] 祥瑞로운 모습과 般若의 그윽한 힘과 관음보살의 비밀스런 靈驗 등에 이르러서는, 別記에 갖추었음이라, 일이 繁多하여 수록하지 않노라.

石像이란 바로 돌로 만들어진 佛像이므로 위의 경우와 같다.

『大論』云 “諸佛 常放光說法 衆生 罪故 對面 不見。” 是須一像 既爾 餘像 例然 樹石山林 隨相標立 導我心路 無越聖儀 (『緇門警訓』雜錄 住持三寶)

『대론』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이 항상 빛을 발하여 설법하거늘, 중생은 죄를 지은 때문에 마주 대하나 보지 못한다.” 라고 하니, 이는 모름지기 하나의 像은 이미 그러하고, 나머지 像도 예와 같이 그러하며, 나무·돌·산·숲에 相(모습)을 따라 표식으로 세울 것이니, 내 마음의 길을 인도하는 것에는 聖儀(성스런 불상)를 넘는 것이 없느니라.

위의 '像'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글은 『緇門警訓』의 雜錄 住持三寶에 쓰인 글로서 '佛寶'를 설명한 대목이므로, 위에 인용된 문장과 같이 '佛像'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所恨 同生像季 去聖時遙 佛法 生疎 人多懈怠 略伸管見 以曉後來 若不鐫矜 誠難輪道 (『緇門警訓』警訓 滄山大圓禪師警策)

한스러운 것은 像法과 季法の 시기에 함께 태어나 성인을 보낸 시기가 멀리 떨어진지라, 불법은 생소하고, 사람들이 다분히 게으르고 나태하니, 간략하게 소견을 펴므로써 뒤에 오는 이들을 깨우치고자 하노니, 만약 자만을 없애지 않으면 진실로 윤회를 면하기 어려우니라.

實賴後昆 克荷斯道 汝曹 虛心聽法 潔己依師 近期於立身揚名 遠冀於革凡成聖 發揮像法 捨子而誰 (『緇門警訓』勉學 孤山圓法師示學徒)

[그렇게 한다면] 진실로 後孫에게 의지하여야만 능히 이 道를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을 비워 법을 듣고 몸을 깨끗이 하여 스승에게 의지하여, 가까이 있는 몸을 세워 이름을 드날릴 것을 기약하고, 멀리는 범부[의 품성]를 개혁하여 성인[의 품성]을 이루기를 바래야 할 것이니, 像法을 發揮할진댄(펼치어 드러내려한다면) 그대가 아니면 누구이리요?

위에 나열된 두 가지 경우는 모두 ‘像法’이라는 뜻이다. 釋迦牟尼 부처님께서 入滅한 후 5백 년간의 正法時로부터 천 년간의 시기를 像法時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교법은 있지만 믿음이 형식으로 흘러 사찰과 탑을 세우는 데에만 힘쓰고 진실한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證果를 얻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즉 正法이 ‘있는 그대로의 시기’인 것에 반해 ‘像法’은 ‘없으나 있는 것과 유사한 시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 쓰이는 ‘像’ 또한 ‘모방하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다.

嗟夫 一切含靈 萬像形儀 皆屬無常 未離生滅 (『緇門警訓』書狀 洞山良价

和尚辭親書 初書)

오호라, 일체의 중생과 만 가지 모습의 形儀는 모두 無常에 속하여 生滅을 떠나지 못함이라.

故知 妙道 無形 萬像 不乖其致 眞如 寂滅 衆響 靡異其源 迷之則見倒惑 生悟之則違順無地 (『緇門警訓』書狀 婺州左溪山朗禪師召永嘉大師山居書)

그러므로 알라! 오묘한 道는 無形이라, 萬像(일체 모습)이 그 이치를 어기지 않고, 眞如는 寂滅이라, 못 메아리(일체 소리)가 그 근원과 다르지 않으니, 미혹되면 곧 見解가(생각이) 顛倒되어 迷惑이 생기고, 깨달으면 곧 어기고 따르는 것이 자리할 곳이 없으리라.

‘萬像’이란 ‘마음 밖에 존재하는 境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앞에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흔히 ‘은갖 사물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萬象’과 ‘萬像’이라는 글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佛典에서는 몇몇 잘못 사용하거나, 혼동한 예를 제외하고는 ‘萬象’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인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모사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곳의 ‘像’ 역시 ‘模寫하다’라는 뜻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抱入天祠 天像 悉起 阿私陀仙 合掌歎曰 “相好明了 必爲法王 自恨當死 不得見佛。” (『緇門警訓』序文 禪林妙記前序)

품에 안고 天祠에 들어감에 천신의 형상들이 모두 일어남이라, 阿私陀仙人이 함장하고 찬탄하여 말하기를, “相好가 분명하시니 필시 법왕이 되

리라. 죽음에 임박하여 부처님을 뵈 수 없는 것을 스스로 한탄함이다.” 하였다.

天像이란 ‘梵天의 신’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묘사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음 밖의 경계에, 어느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그린 肖像畫가 있을 때, 개체로 존재하는 사람은 ‘象’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그린 초상화는 그것을 비슷하게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像’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흔히 形象과 形像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마음 밖의 경계로 존재하는 개체 자체나, 그것을 模寫한 肖像畫나 조각물 등을 모두 實在하는 것으로 보아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佛典에서는 존재하는 개체는 인연에 의해 잠시 모습을 보여줄 뿐, 한갓 망상인 것으로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象’이라는 글자를 써서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코끼리’라는 뜻으로만 사용하며, 경계에 해당하는 것에서 묘사품이 분명한 것만을 ‘像’을 써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佛典에서는 ‘佛像’과 같이 ‘부처님을 模寫하여 부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을 나타내거나, 경계 밖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實在하는 것을 유사하게 模寫한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相

‘相’¹¹⁾은 『說文解字』에 따르면,

相 省視也 从目 从木 『易』曰：“地可觀者 莫可觀於木” 『詩』曰：“相鼠有皮” 息良切(xiāng)

相은 살펴보는 것이다. 눈을 따르고 木을 따른다. 『易經』에 따르면 “지상의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樹木(수목)만큼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詩經』에 따르면 “쥐를 살펴보니 가죽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反切은] 息良切이다.

라고 하였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相’의 本義는 ‘자세히 살펴다’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佛典이외의 문장에서는 ‘象’이 外境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像’은 ‘象’을 모방한 것을 나타내는데 반하여, 佛典에서는 ‘象’은 ‘코끼리’ 만을 나타내고, 外境에 존재하는 것들은 實在하지 않고 그것을 模寫한 것이기 때문에 ‘像’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論議하고자 하는 ‘相’의 경우는 佛典이외의 것에서는 ‘樣相’이나 ‘觀相’과 같이 몇 군데에서 ‘모습’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佛典에서와 같이 넓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佛典에서는 外境에 드러난 것과, 아니면 그것을 모방한 것들을 인식할 때, 눈을 통하여 外境에 드러나거나 모방한 것이 직접 머릿속에 들

11) 甲骨文은 𠄎, 金文은 𠄎, 小篆은 𠄎이다.

어가거나, 外境에 드러나는 소리가 직접 귀를 통하여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視覺映像이나 聽覺映像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데, 머릿속에 들어간 그 視覺映像이나 聽覺映像 등의 모습을 '相'이라고 한다.

즉 흔히 '見分'을 主觀, '相分'을 客觀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객관이란 마음 밖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계가 머릿속에 그려져 사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佛典에 사용되고 있는 예는 '見'과 대비시켜 '相'의 용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아래의 논의에서 예를 들어 설명키로 한다.

따라서 上記의 論議를 정리해 보면,

① '象'이라는 글자는 佛典을 제외한 일반적인 문헌에서는 外境에 존재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佛典에서는 단지 '코끼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佛敎에서는 外境에 존재하는 一切의 것이 實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연에 의해 잠시 存在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므로 '코끼리'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외에는 '象'을 쓰지 않는다.

② '像'은 現代漢語에서도 '비슷하다, 닮다'와 같이 쓰이는 것과 같이, 外境에 존재하는 것을 다시 복사해 둔 것, 즉 佛像과 같은 것을 말하며, 때로는 佛像은 아니지만 外境에 存在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佛典에서는 外境에 存在하는 것이 모두 實在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에 의해 잠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진짜가 아닌 그것과 유사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③ '相'은 外境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外境에 존재하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다른 감각기관을 통하여 마음속에 그려낸 모습'을 지칭한다.

2. 見과 相

佛典에 보이는 '見'과 '相'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다'라는 動詞나 '서로'라는 副詞로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見'과 '相'을, 먼저 文字學의 측면에서 그것들의 本義를 살펴보고, 統辭的 측면에서 그것의 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見

'見(𠄎/見/見)'은 『說文解字』에 의하면,

見 視也 从儿 从目 凡見之屬皆从見

見은 본다는 뜻이다. 儿과 目을 따른다. 무릇 見에 屬하는 것은 모두 見을 따른다.

라고 하였는데,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析言之 有視而不見者 聽而不聞者 渾言之 則視與見 聞與聽一也

나누어 말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 합하여 말하면, '視'와 '見', '聞'과 '聽'은 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視而不見者)’이라는 말은, ‘視’가 ‘그저 생각 없이 눈에 보여 지는 것’인 반면, ‘見’은 ‘무엇인가 판단 기준이 있어 그것에 비추어 판단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甲骨文 등에 보이는 글자의 모양으로 보아 ‘見’은 사람의 양 발 위에 눈을 그림으로써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표시한다. 또한 許慎의 『說文解字』에 의하면 “見, 視也”라고 밝히고 있으니 그 本義는 ‘보다’라는 뜻의 動詞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本義로부터 변화되어 오날 날 쓰이는 뜻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¹²⁾

‘見’이 /jiàn/(견)으로 읽히는 경우는

- ① 보다, 보이다 (看見) ② 謁見하다¹³⁾ ③ 서로 만나다, 對面하다 (見面)
- ④ 接見하다 ⑤ 마주치다(遇到) ⑥ 見解 ⑦ 主見, 생각(主意) ⑧ 알다 (知道, 覺得) ⑨ 辨別하다 ⑩ 듣다(聽說, 聽見) ⑪ (서로 우열을) 겨루어 보다, 시험을 하다(比試) ⑫ 짐작하다(豫料) ⑬ 계획하다(打算) ⑭ 動詞 앞에서 被動을 표시한다. ⑮ 動詞 앞에서 一人稱을 나타낸다. ⑯ 助詞로 動作의 持續을 표시한다. ⑰ 動詞 뒤에 쓰여 結果를 표시한다. ⑱ 動詞 앞에 쓰여 量을 표시한다. ⑲ 길이와 넓이, 부피 등을 表示하는 數量詞 뒤

12)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pp. 24375-24376. ‘見’條 참조
 13) ‘謁見하다’는 谷衍圭의 『漢字源流字典』에서는 이 항목을 삭제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 한자음과 일치하지만, 『漢語大詞典』을 임의로 고칠 수 없어, 그대로 기술한다. 아마 『漢語大詞典』에서는 중국의 中古시기 韻書인 『廣韻』에서 [古電切]로 읽힌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한자음으로 ‘현’으로 읽히는 것은 『廣韻』에서는 [胡甸切]로 읽히는 것이 정상적인 音變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漢語大詞典』과 『漢字源流字典』이 차이가 나는 것은 더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에 쓰여 ‘대략의 수’를 나타낸다.

등의 뜻으로 쓰이고, ‘見’이 /xiàn/(현)으로 읽히는 경우는

- ① “現”의 古字로 ‘드러나다(顯現)’ ② “現”의 古字로 ‘드러내 보이다(顯示)’ ③ “現”의 古字로 ‘現在’ ④ “現”의 古字로 ‘既成의(現成)’ ⑤ 介紹하다(荐舉) ⑥ 進上하다(進獻)

등의 뜻으로 쓰인다.

이와 같이 ‘見’은 ‘보다’라는 本義에서 引伸되어 ‘解得하다’나 ‘드러나다’라는 動詞로 사용되거나, ‘見解’라는 뜻의 名詞로 쓰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見’은 동사의 앞에 쓰여 被動을 표시하기도 하고, 受事者를 指示하여 人稱代詞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結果補語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見’을 무조건 ‘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本考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의미항목들을 『漢字源流字典』¹⁴⁾에서 제시한 항목들과 비교하여, ‘보다, 謁見하다, 서로 만나다(見面), 接見하다, 마주치다(遇到)’ 등을 ① 本義 ‘보다’로 쓰이는 경우로 묶고, ‘알다

14) 『漢字源流字典』의 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谷衍圭, 『漢字源流字典』(北京: 語文出版社, 2010년 4월 2版) p. 82
 (1) /jiàn/(견): ① 보다 (看到) ② 다른 사람과 만나다(與別人會面) ③ 接見하다 ④ 마주치다(遇到) ⑤ 接觸하다 ⑥ 볼 수 있다(看得出) ⑦ 이해하다(了解) ⑧ 主張하다 ⑨ 짐작하다(豫料) ⑩ 듣다(聽到) ⑪ 서로 우열을 겨루어 보다(比試) ⑫ 계획하다(打算) ⑬ 경험하다(經歷) ⑭ 出處나 참고해야 할 것을 분명히 지적하다 ⑮ 自己(一人稱) ⑯ 被動으로 받다(被, 受到) ⑰ 보거나 들은 結果 ⑱ 動作의 持續 ⑲ 관 뚜껑(棺罩) ⑳ 姓 (2) /xiàn/(현): ㉑ 눈에 띄다(被看見) ㉒ 介紹하다 ㉓ 現在 ㉔ 既成의

(知道, 覺得), 辨別하다’ 등을 ② ‘解得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는 경우로 묶으며, ‘現’의 古字로 ‘드러나다(顯現)’나 ‘드러내 보이다(顯示)’ 등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③ ‘드러나다’라는 뜻의 動詞로 쓰이는 경우로 묶고, ‘見解, 主見’ 등을 ④ ‘見解’라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로 묶으며, ⑤ 動詞 앞에서 被動을 표시하는 경우와 ⑥ 動詞 앞에서 一人稱을 표시하는 경우, ⑦ 動詞 뒤에서 結果를 표시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本考를 기술하기로 한다.¹⁵⁾

(1) 本義인 ‘보다’로 쓰이는 경우

‘謁見하다, 서로 만나다(見面), 接見하다, 마주치다(遇到)’ 등의 행위들은 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들이므로 이곳에서 함께 묶어 기술한다.

‘見’이 ‘보다’라는 뜻의 動詞로 쓰이기 위해서는 그 뒤에 출현하는 目的語는 名詞나 代詞가 되어야 한다. 만약 분명히 動詞로 해석되어야 하는 詞가 출현한다면 결코 ‘보다’라는 뜻의 動詞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漢字는 品詞의 詞性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문장 속에서 그것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체로 그것의 뒤에 動詞로 쓰이는 단어가 출현할 때는 ‘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5) 들다(聽說, 聽見), (서로 우열을) 겨루어보다(比試), 짐작하다(豫料), 계획하다(打算), 助詞로 動作의 持續을 표시하는 경우, 動詞 앞에 쓰여 敬양을 표시하는 경우, 길 이와 넓이·부피 등을 表示하는 數量詞 뒤에 쓰여 ‘대략의 수’를 나타내는 경우, “現”의 古字로 ‘現在’, “現”의 古字로 ‘既成의(現成)’, 介紹하다(荐舉), 進上하다(進獻) 등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상용되는 용법이 아니고, 너무 방만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聞聲見色 盖是尋常 遮邊那邊 應用不闕 如斯行止 實不枉被法服 (『緇門警訓』警訓 滄山大圓禪師警策)

소리(聲)를 듣고 물체(色)를 보는 것은 대체로 예사로운 것이나, 이곳저곳에서 응용하는 것이 모자라지 않으니,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고 그친다면 진실로 法服을 그릇되게 입은 것이 아니니라,

若見端正男女 如死尸相似 便可行姪 若見己財他財 如糞土相似 便可侵盜 (『緇門警訓』警訓 永明智覺壽禪師垂誠 및 八溢聖解脫門)

만약 단정한 남녀를 보되 마치 시체와 같이 하여야, 곧 음행을 행할 수 있으며, 만약 자신의 재물이나 남의 재물을 보되 마치 똥이 섞인 흙덩어리(섞은 흙) 같이 하여야, 곧 도적질을 할 수 있느니라.

中庸子喟然嘆曰: “吾嘗見恥智之不逮·才之不敏而輟於學者 未見恥飲食不如他人之多而輟飲食者.”(『緇門警訓』勉學 孤山圓法師勉學篇 並序)

중용자가 크게 탄식하며 이르기를: “내 일찍이 지혜가 미치지 못하며 재주가 민첩하지 못함을 수치스러워 하여 배움을 걸어치우는 자는 보았지만, 음식이 다른 사람처럼 많지 않음을 수치스러워 하여 음식을 걸어치우는 자는 보지 못했노라.”

위의 예를 살펴보면 ‘見’의 뒤에는 名詞나 名詞性詞組¹⁶⁾가 오는 것을

16) 詞組: ‘두 개나 그 이상으로 구성된 단어의 조합’을 말하며, 혹자는 이것을 ‘短語’나 ‘句’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名詞性詞組를 名詞句라고 하여도 좋다. 그러나 ‘句’는 문장을 ‘句子’로, 흔히 節(主節, 從屬節)이라고 부르는 것을 ‘分句(上·下分句)’라고 부르기도 하여 혼동되므로 本考에서는 가급적 詞(단어)의 조합이라는 의미인 ‘詞組’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볼 수 있다. ‘吾嘗見恥智之不逮·才之不敏而輟於學者 未見恥飲食不如他人之多而輟飲食者動詞’에서는 뒤에 動詞 ‘恥’가 출현하고 있지만, ‘見’의 목적어는 ‘…恥智之不逮·才之不敏而輟於學者’와 ‘…恥飲食不如他人之多而輟飲食者’로서 名詞性詞組이기 때문에 ‘보다’라는 動詞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2) ‘解得하다’라는 뜻의 動詞로 쓰이는 경우

‘알다(知道, 覺得), 辨別하다’ 등은 단순히 보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기준점, 즉 견해나 집착하는 바¹⁷⁾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解得하다’에 함께 묶어 기술한다.

須信道 眞善知識 爲人中最大因緣 能化衆生 得見佛性 (『緇門警訓』警訓 永明智覺壽禪師垂誠 및 八溢聖解脫門)

道를 믿어라! 참된 선지식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因緣인지라, 衆生을 교화할 수 있고, 佛性을 해득할 수 있느니라.

‘見’의 앞에 ‘…할 수 있다’는 뜻인 助動詞 ‘得’이 있고, 뒤에는 ‘佛性’이라는 名詞가 있기 때문에, ‘見’은 반드시 動詞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見’은 ‘단순하게 보다’가 아니라, ‘마음에 비추어(見分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苟達之而不見彼此 應當互相成濟 共熟機緣 其猶萬派朝宗 無非到海 百官

17) 이것은 第7識(意)이나 ‘見分’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蒞(莅)事 咸曰勤王 (『緇門警訓』遺誠 孤山圓法師示學徒)

진실로 [그것을] 통달하여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여] 보지 않으면(구별하지 않으면) 응당 서로 구제함을 이루어 함께 [부처님의 教化를 받을 만한] 機緣을 성숙시키리니, 그것은 마치 萬 개의 물줄기가 모여들며, 바다에 이르지 않는 것이 없으며, 문무백관이 일에 임함(일을 담당함에) 모두들 왕의 일에 힘쓴다고 일컫는 것과 같으니라.

不見他非我是 自然上敬下恭 佛法 時時現前 煩惱 塵塵解脫 (『緇門警訓』示衆 白楊順禪師示衆)

남이 그릇되고 내가 옳다고 보지 않는다면(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윗사람이 敬愛하고 아랫사람은 恭順할 것이요, 佛法은 시시각각 눈앞에 드러나며, 煩惱는 티끌마다 解脫하리라.

위의 두 例文에서 ‘見’은 사물을 판단할 때, 相分(客觀)을 見分(主觀)에 비추어 판단하여 ‘구분하여 보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사실 本義인 ‘보다’라는 의미는 ‘의지적으로 見分에 비추어 판단하여 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단순하게나마] 본다.’라는 뜻에 초점을 두지만, 解得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主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곳의 ‘見’은 그 裏面에 ‘見分에 비추어’ 判斷하여 解得한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할 것이다.

(3) ‘드러나다’라는 뜻의 動詞로 쓰이는 경우

‘現’의 古字로 ‘드러나다(顯現)’나 ‘드러내 보이다(顯示)’ 등은 내가 의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 지는 것이므로 ‘드러나다’에 함께

뭉어 기술한다.

豈得身棲講肆 跡混常徒 在穢惡則無所間然¹⁸⁾ 於行解則不見可畏 以至積
習成性 自滅其身 (『緇門警訓』遺誠 孤山圓法師示學徒)

어찌하여 몸은 강의하는 자리(講肆)에 깃들여 있으면서도, 자취는 보통
의 무리에 섞여있고, 더럽고 추악한 곳에 處하여도 나무라는 바가 없고,
修行과 지혜에 있어서는 [보통의 무리가] 두려워할(공경할) 만한 것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나쁜] 습성을 쌓아 (나쁜 것에 혼숙되어) [나쁜]
성품이 이루어지는데 도달하여, 스스로 그 몸을 멸할 수 있으리오!

‘見’은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現’으로 읽고 해석한다.

사실 오늘날 ‘나타나다’라는 뜻의 ‘現’은 본래 ‘보다’라는 本義를 가진
‘見’이 本義로부터 ‘나타나다’라는 引伸義를 갖게 되자, 本義로 해석되
는 것과 分別하기 위해, 나중에 ‘現’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分化시켰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莫’이 ‘어둡다, 저물다’라는 本義로부터 ‘없
다’라는 假借義로 쓰이게 되자, 따로 ‘暮’라는 글자를 만들어 分化시켰
지만, 아직도 ‘모’라고 읽을 때는 그 本義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4) ‘見解’라는 뜻의 名詞로 쓰이는 경우

‘보다’나 ‘解得하다’, ‘드러나다’ 등은 動詞로 쓰이는 것이지만, ‘見解,
主見’ 등은 명사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見解’로 뭉어 기술한다.

18) 間然: 缺點을 指摘하여 비난하는 모양. 이의(異義)를 제기(提起)함

所恨 同生像季 去聖時遙 佛法 生疎 人多懈怠 略伸管見 以曉後來 若不觸
矜 誠難輪道 (『緇門警訓』警訓 滄山大圓禪師警策)

한스러운 것은 像法和 季法の 시기에 함께 태어나 성인을 보낸 시기가
멀리 떨어진지라, 불법은 생소하고, 사람들이 다분히 게으르고 나태하
니, 간략하게 소견을 펴으로써 뒤에 오는 이들을 깨우치고자 하노니, 만
약 자만을 없애지 않으면 진실로 윤회를 면하기 어려우니라.

‘管見’은 ‘천박한 견식, 좁은 소견’이라는 뜻이며, ‘見’은 ‘管’의 수식을
받는 名詞이다.

且夫道性 沖(沖)虛 萬物 本非其累 眞慈 平等 聲色 何非道乎? 特因見倒惑
生 遂成輪轉耳 (『緇門警訓』書狀 婺州左溪山朗禪師召永嘉大師山居書)

또한 道性은 비어 있는 것인지라, 萬物은 본디 [쌓여서 더럽혀진] 번뇌
가 아니며, 참된 慈悲는 평등한 것이니, 聲·色[과 같은 境界]이라고 어
찌 도가 아니겠는가? 다만 [분별하여] 보는 것(主觀인 見分)으로 말미암
아 顛倒된 의혹이(번뇌가) 생겨나, 마침내 윤회를 이룰 뿐이니라.

이곳에 나타난 ‘見’은 介詞¹⁹⁾ ‘因’의 目的語(즉 介詞目的語)로 쓰이고
있어서 品詞로는 名詞라고 할 수 있다.

‘見’은 ‘생각하고 推求하여 事理를 결탁하는 것’으로 올바른 견해인
‘正見’이나 ‘偏見’ 등에 두루 통하나 흔히 ‘偏見’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19) ‘前置詞(preposition)’라고도 하는 것으로 ‘명사, 代詞 또는 名詞性詞組 앞에 쓰여 방
향, 대상 등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이것은 境界인 色을 받아들여(受) 각 개인에게 형성되어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집착된 생각으로 主觀인 ‘見分’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 動詞 앞에서 被動을 표시하는 경우

‘見’이 ‘보다’류의 動詞로 사용되려면 반드시 뒤에는 名詞나 代詞가 出現되어야 하나, ‘見’의 뒤에 動詞가 出現하는 경우도 많다. 아래에서 그 例를 살펴본다.

無乃²⁰⁾見大笑耶 (『緇門警訓』叙註緇門警訓)
아마도 크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見’은 被動標識이다. ‘見’이 ‘보다’라는 동사가 되려면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오게 되므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名詞나 代詞가 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動詞(笑)’가 나오게 되므로²¹⁾ ‘見’이 被動을 나타내는 標識이거나 人稱代詞로 쓰일 때이며, 여기에서는 被動이라고 할 수 있다.

始教慕彼上賢 終見淪於下惡 如斯之輩 誠可悲哉 『詩』云: “靡不有初 鮮克有終” 斯之謂矣 中人以上 可不誠歎 (『緇門警訓』遺誠 孤山圓法師示學徒)

20) 無乃: ‘豈不是’와 같은 뜻으로 ‘어찌 ...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된다.
21) ‘大’는 副詞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기로] 하여금 저 上賢들을 사모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下惡에 빠지나니(下惡에게 침몰되니), 이와 같은 무리는 진실로 可히 슬플 뿐인 저! 『시경』에 이르기를: “ ‘처음’은 있지 아니함이 없으나 능히 ‘마침’이 있는 것은 드물다.”고 하니, 이를 말한 것이라, 중간 根機의 이상인 사람은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見’은 ‘보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被動을 나타내는 標識이다. ‘見’의 뒤에 나오는 ‘淪’은 ‘빠지다’라는 동사이며, ‘於下惡’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於’를 被動標識의 ‘見’ 뒤에서 行爲의 主動者를 이끄는 介詞로 보아, ‘下惡에게 침몰되니’라고 해석하던지, ② ‘於’를 장소를 이끄는 介詞로 보아 ‘下惡에 빠지나니’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지 ‘見’은 마땅히 被動標識를 나타내는 것만은 분명하다.

不然 生生之厚 貪愛無休 必將見傷其性命而汚其形服矣 世人其訓之 (『緇門警訓』雜錄 吉州龍濟山友雲整和尚蛇穢說)
그렇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터워, 탐내고 사랑하는 것이 쉬지 않으면, 반드시 장차 [그는] 그의 목숨을 상하게 되고, 몸과 옷을 더럽히게 될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훈계할지이다.

‘見’은 바로 뒤에 ‘傷’이라는 動詞가 나오므로, ‘그 性命을 傷하고 그 形服을 汚함을 보리니’와 같이 ‘보다’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被動標識로 보아야 한다.

龜曰“今被拘執 方見烹哉 雖盡南山樵 不能潰我 諸葛元孫 博識 必致相苦”

(『緇門警訓』附錄 傳記)

거북이 이르기를 『지금 잡혔으니, 바야흐로 삶기게 될 것이다. 비록 남산의 뿔나무를 다 태우더라도, 나를 문드러지게 하지 못하겠지만, 제갈씨의 원손은 박식하니, 필시 진력을 다하여 나를 괴롭힐 것이다』하므로,

‘今被拘執, 方見烹哉’에서 ‘被’와 ‘見’은 서로 對를 이루는 것으로, 모두 被動을 나타낸다. 따라서 ‘被’는 ‘...을 입다’, ‘見’은 ‘...을 보다’라는 동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又有一句 ‘世上功名看木·鴈 坐中談笑慎桑·龜’ 註 ‘木以材見伐 鴈以不鳴就死’ 見『莊子』(『緇門警訓』附錄 傳記)

또 한 글귀가 있으니 ‘세상에서 공덕과 명예를 [구할 때는] 나무와 기러기의 일을 보고, 앉은자리에서 담소할 때는, 뿔나무와 거북의 일로 삼가하라.’고 하였다. 주석에, ‘나무는 재목이 됨으로 벌목되고, 기러기는 울지 않음으로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장자』를 보라.

‘見伐’에서 ‘見’의 뒤에는 動詞 ‘伐’이 출현하여 被動標識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見’은 뒤에 動詞가 올 때는 결코 ‘보다’라는 의미의 動詞로 해석될 수 없고, 많은 경우 被動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6) 動詞 앞에서 一人稱을 표시하는 경우

‘見’의 뒤에 動詞가 出現한다고 반드시 被動標識라고 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 그 예를 살펴본다.

近尋書²²⁾ 誨 且以禪教之說 見教 讀之 深有開慰 而向來 亦嘗有所開示 適以多事 不能與師周旋 今復有言 自非見愛之深 孰能以此 相警 顧我愚昧 何足知之 然 師 所言者 予竊疑焉 (『緇門警訓』書狀 顏侍郎答雲行人書)
근자에 영광스럽게 서신으로써 가르쳐 주시고, 또한 禪과 教에 대한 說로써 날 가르쳐 주시니, 그것을 읽었을 때, 깨닫고 위로됨이 절실하였나이다. 또한 지난번 역시 일찍이 계시한 바가 있었건만, 마침 많은 일 때문에 스님과 더불어 [서신을] 내왕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다시 말씀이 있으시니, 저를 사랑하는 것이 깊지 않으면, 누가 능히 이것으로써 나를 警策하리오? 돌이켜보건대 제가 우매하니, 어찌 족히 알까마는, 그러나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는 마음속으로 의심하노이다.

‘見教’와 ‘自非見愛之深’의 ‘見’은 모두 뒤에 動詞 ‘教’와 ‘愛’가 出現하지만 被動을 나타내지는 않고, 문맥으로 보아 오히려 각각 一人稱代詞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見’이 ‘보다’라는 뜻의 動詞로 쓰일 때는, 뒤에 오는 글자가 그것의 目的語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²³⁾ 名詞나 代詞가 오지만, ‘見’이 一人稱代詞로 쓰이거나 被動을 나타내는 標識로 쓰일 때는 뒤에 오는

22) 尋書: 남에게 편지를 받아 대단히 영광스럽다고 존대하여 일컫는 말.

23) 內包文 등이 올 때는 動詞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글자가 반드시 動詞이어야 한다. 이러한 統辭論的 관점은 문장을 이해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見’이 人稱代詞로 쓰일 때면 주로 一人稱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四分(見分, 相分, 自證分, 證自證分)이라고 하여, ‘見分’과 ‘相分’을 구분하여 쓰는데, 이 때 ‘見分’이라고 하면 주관을 나타내는 것과 一致하고, 文字學的으로도 ‘見’은 目(兒)에 目(目)을 그린 것으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 動詞 뒤에서 結果를 표시하는 경우

動詞 뒤에 또 動詞가 나오면 連動詞로 이해하여 ‘앞 動詞하고 뒷 動詞(보다)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古代漢語에서 現代漢語로 변하면서, 第2動詞가 虛化되어 動補構造의 複合動詞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見’의 用法은 바로 動詞가 虛化되어 補語가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 그 例文을 살펴본다.

况『蓮華』妙典²⁴⁾ 鷲嶺極談 大事因緣 開佛知見 是諸佛 降靈本致 實群生 悟入津途 無量國中 不知名字 幸而聞見 那不誦持 (『緇門警訓』序文 釋門 登科記序)

하물며 『蓮華』경전은 靈鷲山 봉우리에서 설한 지극한 말씀인지라, 一大 事 因緣으로 부처님의 知見을 열어 보이셨다하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심령을 내린 근본 취지이며, 진실로 중생의 무리가 깨우쳐 들어가는 나룻길인 것에 있어서라!. [아마도 더욱 최선을 다하여 욕망할 것이다]

24) 蓮華妙典: 미묘한 법을 담은 책이라는 뜻으로 불경을 의미한다.

限量없이 많은 나라에서 [조차도] 이름을 모르거늘, 다행히 들었으니 어찌 암송하여 지니지 않으리요?

‘幸而聞見’의 ‘見’은 ‘看’, ‘聽’, ‘聞’ 등의 뒤에 쓰여 무의식적인 감지 결과 등을 나타내는 動補구조의 複合동사이다. 즉 ‘見’은 動詞가 아니고 動詞를 뒤에서 꾸며주는 補語라고 할 수 있다.

위의 ‘聞見’을 連動詞로 해석하는 경우와 여기에서와 같이 結果補語로 해석하는 경우는 의미상 많은 차이가 있다. 만약 ‘我聞見之’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連動詞로 보고 해석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보았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見’을 結果補語로 보고 해석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서 그 결과 見(이해)되었다’가 되므로, ‘見’은 결코 主語(我)가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用法은 古代漢語에는 없던 用法으로 近代漢語에서 시작하여 現代漢語에서는 흔히 보이는 用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見’은 단순히 本義인 ‘보다’라는 뜻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大別하더라도 꽤 많은 用法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相

相은 『說文解字』에 의하면,

相省視也 从目 从木 『易』曰:“地可觀者 莫可觀於木” 『詩』曰:“相鼠有皮”²⁵⁾

25) 필요에 따라 앞의 설명을 재인용하였다.

相은 살펴보는 것이다. 눈을 따르고 木을 따른다. 『易經』에 따르면 “지상의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樹木(수목)만큼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詩經』에 따르면 “쥐를 살펴보니 가죽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相’의 本義는 ‘자세히 살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서 引伸되어 ‘점을 쳐서 살펴다’가 되었다가, 그것이 名詞가 되어 ‘점을 쳐 보는 形貌, 情狀’이라는 뜻이 되었다가, 관찰하고 판단을 하여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보좌하다’ 나아가서는 ‘보좌하는 사람’ 등의 뜻이 되었다. 이후 관찰할 때는 반드시 나무와 같은 대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대상인 ‘상대방’을 나타내게 되었고, 급기야 虛化되어 ‘서로’라는 뜻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⁶⁾

아래에서는 佛典에서 자주 쓰이는 용법을 골라 위의 뜻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그 밖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도 살펴볼 것이다.

(1) 本義인 ‘자세히 살펴다’라는 動詞로 쓰이는 경우

흔히 ‘相’을 ‘서로’라는 뜻의 副詞로 해석한다. 그러나 副詞는 名詞나 代詞 앞에 出現할 수가 없다. 아래에서는 ‘相’이 名詞 등의 앞에서 動詞가 되는 例를 살펴볼 것이다.

26) 谷衍圭, 『漢字源流字典』(北京: 語文出版社, 2010년 4월 2판) p.802

豈假相形問命 詔求榮達之期 擇日選時 苟免否屯之運²⁷⁾ 此豈沙門之遠識 實唯俗子之妄情 (『緇門警訓』遺誠 孤山圓法師示學徒)

어찌 형상을 자세히 살펴 운명을 묻는 것에 假藉하여(의지하여), 榮達할 기약을 아첨하여 구하며, 날을 선택하고 때를 가려, 막히고 어려운 운세를 구차하게 면하리오. 이것이 어찌 사문의 원대한 識見인가? 실로 오직 俗人の 망령된 뜻이로다.

‘相’은 名詞 ‘形’의 앞에 出現하는 것으로, 결코 副詞 ‘서로’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動詞로 해석되어야 한다.

‘相’은 원래 나무를 눈으로 자세히 살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本義는 ‘자세히 살펴다’이던 것이 ‘相을 보다’, ‘占을 치다’ 등의 뜻을 갖게 되었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살펴다’라는 本義로 쓰였다.

(2) ‘모습’이라는 名詞로 쓰이는 경우

‘相’의 앞에 名詞나 代詞가 쓰이면, 그 名詞나 代詞가 主語가 되고 ‘相’이 動詞로 쓰일 수도 있지만, ① 앞에 나오는 名詞나 代詞가 限定語(冠形語)가 되어 ‘相’을 꾸밀 수도 있는데, 이것은 ‘相’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② 또한 ‘相’의 뒤에 動詞가 출현하면, ‘相’이 副詞로 ‘서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相’이 뒤에 出現하는 動詞의 主語가 되어 ‘모습’이라는 뜻의 名詞가 될 수도 있다.²⁸⁾

27) 否屯: 周易의 六四卦 가운데 否卦와 屯卦의 並稱. 否卦는 乾卦와 坤卦가 거듭된 것으로 陰陽이 고르지 못하여 일이 잘 되지 않는 象이요, 屯卦는 坎卦와 震卦가 거듭된 것으로 험난하여 前進하는데 고생하는 象이다. ‘否’는 塞, ‘屯’은 難의 뜻으로 다 같이 운수가 否塞함을 뜻한다.

28) 代詞로서 뒤에 出現하는 動詞의 目的語가 되는 경우는 뒤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그 例文을 살펴보기로 한다.

況乃堂堂僧相 容貌可觀 皆是宿植善根 感斯異報 便擬端然拱手 不貴寸陰 事業 不勤 功果無因克就 豈可一生空過 抑亦來業無裨 (『緇門警訓』警訓 滄山大圓禪師警策)

하물며 너의 당당한 승려의 모습이 용모가 가히 볼 만 한 것은, 모두 전생(宿世)에 심은 善業의 뿌리인지라, 이와 같은 특이한 과보를 감응한 것이거늘, 문득 단정히 [앉아] 손을 마주잡는 것만을 생각하여 寸陰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나니, [생사와 해탈의] 사업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공을 쌓아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인연이 없느니라. [그러하니] 어찌 일생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리오! 아마도 내세의 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로다.

‘僧相’에서 ‘僧’은 名詞로서 ‘相’을 앞에서 꾸미는 限定語이다. 따라서 ‘僧相’은 ‘승려의 모습’으로 해석되고, ‘相’은 ‘모습’이라는 名詞가 된다. 여기에서 ‘승려의 모습’은 外境에 존재하는 승려 그 자체의 모양이 아니고, 우리에게 ‘概念化된 승려의 모습’이므로 ‘相’을 썼다고 볼 수 있다.

學道之門 別無奇特 只要洗滌根塵下 無量劫來業識種子 汝等 但能消除情念 斷絕妄緣 對世間一切愛欲境界 心如木石相似 直饒未明道眼 自然成就淨身 (『緇門警訓』警訓 永明智覺壽禪師垂誡 및 八溢聖解脫門)

도를 배우는 무리에는 별로 기이하거나 특별한 것이 없음이라. 오직 六根과 六塵 아래에서 한량없는 劫 동안 [길러 온] 業識種子를 씻어 내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다만 情念을 사라지게 하고 妄緣을 단절시켜, 세상의 모든 愛欲의 경계에 대하여, 마음이 마치 목적과 같아질 수 있어서, 설사 道眼을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스레 淸淨한 몸을 성취하리라.

이곳에 出現하는 ‘相似’는 現代漢語에서도 ‘他們倆長得很相似.(그들은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에서와 같이, ‘서로 닮다, 서로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複合動詞이다.²⁹⁾ 그런데 動詞의 結合方式은 主述構造의 複合動詞로서, ‘相’은 主語의 역할을 하고 ‘似’는 述語의 역할을 하여 ‘相이 비슷하다’ 즉 ‘모습이 닮다’라는 뜻이 된 것이므로, ‘相’은 본래 名詞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3) ‘서로’라는 副詞로 쓰이는 경우

‘相’의 뒤에 動詞가 出現하면 ‘相’이 副詞로 ‘서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夫業繫受身 未免形累 稟父母之遺軀 假衆緣而共成 雖乃四大扶持 常相違

29) ‘相似’를 動詞라고 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여 ‘他們倆長得很相似’와 같은 문장에서는 ‘相似’의 品詞를 副詞라고 해야 한다. 마치 ‘高’를 語彙의意味로 보면 形容詞라고 할 수 있으나, 漢語에서는 그것의 品詞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문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때로는 名詞나 다른 品詞로 쓰일 수도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高’의 品詞는 形容詞인 것으로 기술되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이, ‘相似’도 語彙의意味로 보아 動詞라고 전제한 것이다.

30) ‘如…相似’라는 하나의 固定結構(固定句)에서, ‘相似’를 이미 複合動詞라고만 고집한다면, 相을 따로 名詞라고 할 수 없으나, 이곳에서는 ‘相似’가 主述構造의 複合動詞라는 것에 근거하여 기술한 것이다. 마치 ‘天下’라는 말을 ‘온 우주’라는 뜻으로 보면 複合名詞가 되겠지만, ‘하늘의 아래’라고 한다면 名詞性詞組(名詞句, 名詞結構)라고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筆者의 생각이므로 그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背 無常老病 不與人期 朝存夕亡 刹那異世 (『緇門警訓』警訓 滄山大圓禪師警策)

대저 業(因果)에 매여 받은 몸(果報)은 形累를 면하지 못하니라, 부모께 서 물려주신 몸을 받아 못 인연에 의탁하여 함께 이룸이로다. 비록 이에 四大가 [이 몸을] 扶持하나 항상 서로 어기고 등저 무상하게 늙고 병드는 것이, 사람과 더불어 기약하지 못하여 아침에 있다가도 저녁에 없어 짐이라, 잘나에 다른 세상이로다.

‘常相違背’에서 ‘相’은 ‘違背’라는 動詞의 앞에 출현하므로 統辭構造로 보아 副詞로 ‘서로’라고 해석되든지, 아니면 動詞 앞에 출현하는 代詞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모두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副詞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을 뿐 아니라, ‘서로’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곳에 배열한다.

(4) 人稱代詞로 쓰이는 경우

‘相’의 뒤에 動詞가 出現하면 ‘相’이 副詞로 ‘서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相’이 代詞로 오히려 그 動詞의 目的語가 되기도 하며, 목적어는 단지 二人稱代詞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각 경우의 例文을 들어 살펴보겠다.

가. 一人稱代詞

纔相覺察 便言“我是山僧” 未聞佛教行持 一向 情存麤糙 如斯之見 盖爲初心 慵惰 饕餮因循 荏苒人間 遂成疎野 不覺 躑躅老朽 觸事面墻 (『緇門警

訓』警訓 滄山大圓禪師警策)

겨우 자기를 깨달아 성찰하여 문득 “나는 산 속의 승려이다.”라고 말하지만, 여태껏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 수행하여 가지지 못하고 줄곧 情(뜻)을 거친 곳에 두나니, 이와 같은 소견은 대개 처음 먹은 마음은 게으르며, 탐욕스럽고 오랜 습관을 따라 행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럭저럭 시간을 끌다가, 마침내 성글고도 거칠게 된다. [그러다] 어느덧 걸음걸이도 배우지 못해 고루하게 늙어버려, 부딪히는 일마다 얼굴이 담벼락을 마주하는 것과 같음이로다.

‘纔相覺察’에서 ‘相’은 동사 앞에서 代詞가 되는 것으로, 앞 뒤 문맥으로 보아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지 서로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므로 一人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실 ‘相’은 本義가 ‘자세히 살펴다’로서 자세히 살펴는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상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二人稱代詞로 쓰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이곳에서와 같이 一人稱으로 쓰이는 것은, 아마도 ‘一人稱인 眞我が 假我를 대상으로 삼아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치 假我인 내가 眞我를 부르면서 ‘主人公아!’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二人稱代詞

가) ‘너’ 또는 ‘너희’

無常殺鬼 念念不停 命不可延 時不可待 人天三有 應未免之 如是受身 非

論劫數 感傷嘆訝 哀哉切心 豈可緘言 遞相警策 (『緇門警訓』警訓 滂山大圓禪師警策)

무상한 殺鬼는 생각할 때마다(순간순간에) 머물지 않으니, 생명은 늘릴 수 없으며 시간은 막을 수 없는지라, 人界·天界·三界에서도 응당 면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몸을 받은 것은 몇 劫이나 되었는지 논할 것이 아닌지라, 고통을 느껴 탄식하고 놀라, 이 마음을 저며 내는 것이 [참으로] 슬프니, 어찌 緘言하고서도 번갈아 너희를 경책할 수 있으리오? [할 수 없다]

‘遞相警策’에서 ‘相’은 위산선사가 선승들에게 警策하는 것이므로 二人稱代詞로 볼 수 있다.

往來 三界之賓 出沒 爲他作則 此之一學 最妙最玄 但辦肯心 必不相賺 (『緇門警訓』警訓 滂山大圓禪師警策)

오고 감에 三界의 나그네이며, 나고 죽음에 다른 이를 위하여 본보기가 되니라. 이 한 가지 가르침이 가장 오묘하고 가장 그윽하니 단지 즐거운 마음으로 힘쓰라. 반드시 너희를 속이지 않으리라.

‘必不相賺’에서 ‘相’은 동사(賺) 앞에 쓰여 代詞로 사용되는 것이며, 속이는 대상은 ‘너희’이므로 二人稱을 나타낸다.

夫學不厭博 有所不知 蓋闕如也 吾宗致遠 以三乘法 而運載焉 然 或魔障相陵 必須禦侮 禦侮之術 莫若知彼敵情 (『緇門警訓』勉學 右街寧僧錄勉通外學)

무릇 배울 때는 널리 익히는 것을 싫어하지 말 것이니, 모르는 바가 있으면 [무엇이] 빠진 듯할 것이니라. 우리의 宗이 멀리까지 이르는 것은 三乘의 법으로 실어 나르는 까닭이나, 그러나 간혹 魔障이(악마의 장애가) 너를 능멸하면 반드시 업신여김을 막아야 하니, 업신여김을 막는 방법은 저들 적의 실정을 아는 것만 같은 것이 없느니라.

‘相陵’에서 ‘相’은 動詞 앞에 쓰여 代詞로 目的語가 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즉 ‘서로가 서로를’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으로 보아 ‘二人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相’이 代詞로 쓰이는 것 중에서 二人稱代詞로 쓰이는 경우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 서로가 서로에게

故知 三界刑罰 縈絆殺人 努力勤修 莫空過日 深知過患 方乃相勸行持 願百劫千生 處處同爲法侶 (『緇門警訓』警訓 滂山大圓禪師警策)

그러므로 알라! 三界의 형벌이 줄을 둘러 사람을 굳게 얽어매는 것이니, 힘써 부지런히 수행하여 헛되게 나날을 보내지 말지어다. 허물과 근심을 깊이 알고서 바야흐로 이에 서로에게 修行하고 持戒하기를 권하하니, 百劫과 千生 동안에 곳곳에서 함께 법의 道伴이 되기를 원하노라.

若無有限之心 自有無窮之福 僧門 和合 上下同心 互有長短 遞相蓋覆 家中醜惡 莫使外聞 (『緇門警訓』警訓 長蘆慈覺隨禪師龜鏡文)

만일 [有無·是非를 가리는] 有限의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무궁한 福祿

이 있느니라. 승려 문중은 화합이라 위아래가 같은 마음이니 서로 장단점이 있을지라도 번갈아 서로를 뒤집어 덮어 주어 집안의 추하고 흉한 일을 바깥사람이 듣도록 하지 말지어다.

‘方乃相勸行持’과 ‘遞相蓋覆’에서 ‘相’은 動詞 앞에 쓰여 단순히 ‘서로’라는 뜻의 부사로 쓰인다고 보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라는 代詞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相’이 代詞로 쓰일 때면 주로 二人稱으로 쓰이고, ‘見’은 一人稱으로 쓰인다. 四分(見分, 相分, 自證分, 證自證分)에서는 ‘見分’과 ‘相分’을 구분하여 쓰는데, 이 때 ‘見分’이라고 하면 주관을 나타내며 ‘相分’이라고 하면 客觀을 나타내므로, ‘見’과 ‘相’이 각각 一人稱代詞와 二人稱代詞로 쓰이는 것과 결코 無關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文字學的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見’은 본인 자신에게 붙어있는 눈을 그린 것이며, ‘相’은 대상인 나무를 눈으로 상세히 쳐다보는 것을 그린 것이니 이것 역시 각각 一人稱代詞와 二人稱代詞로 쓰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특이한 것이 있다면, ‘相’이 一人稱代詞로 사용되는 예를 설명하는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 ‘相’은 本義가 ‘자세히 살펴다’로서 자세히 살피는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상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二人稱代詞로 쓰이는 것이 옳지만, 一人稱代詞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一人稱인 眞我が 假我를 대상으로 삼아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함께’라는 副詞로 사용되는 경우

從³¹⁾他病死與生老 只此一回相括惱³²⁾ (『緇門警訓』警訓 天台圓法師自戒)
그곳에서는 병들고 죽으며 태어나 늙고, 다만 이곳에서는 한차례 함께 힘쓸지니라.

‘只此一回相括惱’에서 ‘相’은 동사 앞에 쓰여,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副詞로 ‘함께’라고 해석될 수 있다.

『孟子』에,

與其妾訕其良人, 而相泣於中庭.『孟子』

(그 첩과 더불어 그녀들의 남편을 비방하고, 中庭에서 함께 울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결코 많지 않으나 아마도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또는 ‘서로’라는 것들은 곧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동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見分과 相分

『金剛經』에 보면,

31) 任也. (맡김이다.)

32) 括惱: 惱롭게 함. 「括」은 「作」의 뜻.

若有人 能受持讀誦 廣爲人說 如來 悉知是人 悉見是人 皆得成就不可量 不可稱無有邊不可思議功德 如是人等 卽爲荷擔如來阿耨多羅三藐三菩提 何以故 須菩提 若樂小法者 著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則於此經 不能聽受 讀誦 爲人解說 須菩提 在在處處 若有此經 一切世間天人阿修羅 所應供養 當知 此處 卽爲是塔 皆應恭敬作禮圍繞 以諸華香 而散其處 (『金剛經』持經功德分)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지니고 읽어 널리 남을 위해 말하여 줄 수 있다면, 여래는 ‘이런 사람이 헤아릴 수도 일컬을 수도 없고 끝없으며 불가사의한 공덕을 모두가 성취할 수 있다.’고,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여래의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소승의 법[만]을 좋아한다면,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에 집착하여, 곧 이 경을 능히 알아들으며, 읽고 암송하여, 남을 위하여 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느 곳에서나 만약 이 경이 있으면 일체 세간의 [六道輪廻 중의] 천도와 인도와 아수라도[의 중생]가 마땅히 공양하는 바이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니라,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모든 꽃과 향을 [『금강경』이 있는] 그곳에 뿌리리라.”

라고 하여, ‘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에 집착한다.’는 말이 있다. ‘著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에서 ‘著’은 집착을 말하고, ‘見’은 所見·意見·見解를 말하는 것이다. ‘我見’은 일명 ‘身見’이라고도 하는데, ‘나’라는 것은 원래 五蘊이 假合하여 생긴 것이므로 참으로 ‘나’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 실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나의 소유라고 집착하는 견해이고, ‘人見’은 우리는 사람이니 地獄趣나 畜生趣와는 다

르다고 집착하는 견해로서, 즉 사람과 짐승, 聖人과 凡人 등의 대상에 대하여 비교하고 차별하거나 경멸감에서 일어나는 대립적 행동이나 현상을 말한다. ‘衆生見’은 중생들의 잘못된 소견으로 즐거운 것을 탐내고 괴로운 것을 싫어하는 동물적인 행동이나 생각으로 자기 몸은 五蘊이 假合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견해이며, ‘壽者見’은 우리는 선천적으로 길든 짧든 간에 일정한 수명을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다고 집착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見’이란 ‘見解’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見解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外境을 接하면서 쌓아 만들어진 일종의 概念으로서, 이것은 각자가 경험한 바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며, 때로는 지식이 되지만, 때로는 집착하는 바이며, 그것이 곧 나의 主觀이며, 앞으로 接하게 되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四分에서 말하는 見分이며, 主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金剛經』에 보면,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卽非菩薩 (『金剛經』大乘正宗分)

이와 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이 많은 중생을 멸도하지만, 실제로는 멸도할 수 있는 중생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我相]·남이라는 생각[人相]·중생이라는 생각[衆生相]·오래 산다는 생각[壽者相]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여, ‘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 ‘相’이란 ① 모습, 형태, 상태, 양상, 양태, 모양, 외견의 모습,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② 특질, 특징(lakṣaṇa) ③ 성질 ... 등의 뜻으로,³³⁾ 一切事物의 특징을 갖춘 外觀形狀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人生은 色(物質), 受(感覺), 想(知覺), 行(意志), 識(意識) 등 五蘊이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我相’이 있다는 것은 구성된 ‘實我’의 外部形狀에 執着하는 것을 말하고, ‘人相’이 있다는 것은 六道에 윤회하는 人間自體를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형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衆生相이 있다는 것은 五蘊에 의해 생겨, 外部에 존재하는 時限(壽命, 一種의 段階式 存在의 생명)을 진실한 外部形狀으로 여기는 것을 가리키며, 壽者相이 있다고 하는 것은 假相의 生命으로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에서 ‘相’이란 ‘일정한 특징을 갖춘 외부형상’을 이른다 고 본다.

上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見’이 개인 개인에게 이미 형성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판기준이자, 주관인 것에 반하여, ‘相’이란 ‘見’에 의해 판단되는 판단대상이며 客觀이 된다.

또한 ‘相分’이란 ‘見分’의 판단대상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六境(色·聲·香·味·觸·法)으로 마음 밖에 존재하는 視覺映像이나 聽覺映像이 아니고, 그것이 이미지로 변하여 머릿속에 들어온 대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3) 金吉祥 編, 『佛敎大辭典 上』(서울: 弘法院, 1998), p. 1245. 참조

III. 결론

우리는 흔히 ‘見’을 단순히 ‘보다’라고만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統辭의 構造로 보아 결코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경우를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見’은 본래 ‘보다’라는 뜻이었던 것이引伸되어 ‘解得하다’나 ‘드러나다’라는 動詞로 사용되거나, ‘見解’라는 뜻의 名詞로 쓰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見’은 동사의 앞에 쓰여 被動을 표시하기도 하며, 受事者를 指示하여 人稱代詞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結果補語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각각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見’이 ‘보다’, ‘解得하다’, ‘드러나다’ 등의 動詞로 쓰이는 경우는 뒤에 반드시 名詞나 代詞가 오는 경우로서, 상황에 따라 ‘보다’, ‘解得하다’, ‘드러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見’이 限定語(冠形語)에 의해 修飾될 때, 또는 ‘見’이 介詞(前置詞)의 目的語로 쓰일 때 ‘見’은 名詞로 ‘見解’라는 뜻으로 쓰인다.

셋째, ‘見’의 뒤에 動詞가 출현할 때는 결코 動詞인 ‘보다’, ‘解得하다’, ‘드러나다’ 등으로 해석될 수 없고, 被動標識로 쓰이거나 오히려 一人稱代詞로 쓰이고 있다. 또한 ‘見’이 一人稱代詞로 쓰이는 것은 四分(見分, 相分, 自證分, 證自證分) 중, ‘見分’이 主觀을 나타내는 것과 결코 無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見’이 動詞의 뒤에 쓰이면서 문맥으로 보아 連動詞로 해석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 그 동사의 結果補語로 쓰인다.

上記의 記述을 따라 ‘見分’이 主觀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相分’은 客觀을 나타낸다.

흔히 客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람의 認識 밖에 존재하는 事物 자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外境에 존재하는 事物 자체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³⁴⁾ 마음속에 맺혀진 相이 인식대상이 되는 것이다. 本考에서는 外境에 존재하는 것과 인식대상이 되는 것을 각각 ‘象’, ‘像’, ‘相’으로 분리하여 그것이 지시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象은 現代漢語에서는 ‘코끼리’, ‘어떤 사물의 모양, 形象, ‘模倣하다, 본뜨다’ 등의 뜻으로 쓰이지만, 佛典에서는 혼동하고 있는 몇몇 예를 제외하고, 거의 ‘코끼리’라는 뜻으로만 사용된다.

둘째, 像은 ‘佛像’과 같이 ‘實在하는 것을 유사하게 模寫한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셋째, ‘相’이 ‘象’이나 ‘像’과 같이 名詞로 ‘모습’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는, 그것이 外境에 존재하는 事物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받아들여진(受) 인식대상으로서 대상, 즉 相分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외에도 ‘相’은 動詞로 ‘자세히 살피다’, 副詞로 ‘서로’라는 뜻으로 쓰인다.

다섯째, ‘相’은 人稱代詞로 一人稱과 二人稱을 나타낸다. 사실 ‘相’은 本義가 ‘자세히 살피다’로서 자세히 살피는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상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二人稱代詞로 쓰이는 것이 옳지만, 이곳에서

34) 이것을 五蘊 중의 受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이 一人稱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一人稱인 眞我が 假我를 대상으로 삼아 자세히 살피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相’은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또는 ‘서로’라는 것들은 ‘서로서로가 모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以上の 論議를 통하여, 무심코 써오던 用語들이, 內包된 일정한 含意가 있을 뿐 아니라, 文章에서의 일정한 用語가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흔히 혼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含意를 통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孟子』에서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孟子』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고도 잘 할 수 있는 것을 良能이라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는 것을 良知라고 한다)

라고 한 이래, 王陽明에 이르러서도 ‘良知’라는 말을 답습하였고, 지금의 학자들은 무심코 ‘良知’라고 쓰고 있지만, 知識과 智慧를 굳이 나누어 쓴다면, 과연 ‘良知’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良智’라고 써야 옳으나, 孟子가 이미 썼기 때문에 고칠 수 없어, 그대로 두었을 뿐인가?

또, ‘知見’이 옳은가? ‘智見’이 옳은가? 아니면 두 가지가 모두 옳은데 의미하는 바가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도 앞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사전류

- 羅竹風, 『漢語大詞典』, (上海: 上海古籍, 2001年09月)
- 谷衍圭, 『漢字源流字典』(北京: 語文出版社, 2010년 4월 2版)
- 金吉祥 編, 『佛教大辭典』, (서울, 弘法院, 1998)

2. 원전류

- 『詩經』
- 『道德經』
- 『孟子』
- 『韓非子』
- 許慎, 『說文解字』
- 段玉裁, 『說文解字注』

3. 단행본

- 안재철 · 수암스님,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金剛經』』, (서울: 운주사, 2006년 10월)
- 안재철, 『『緇門警訓』의 문법적 이해』, (서울: 하늘북, 2004년 04월)
- 안재철, 『본의로 이해하는 540 부수 한자』, (서울: 하늘북, 2003년 09월)

An Analysis of the Meaning of Commonly Used Buddhist Terminologies

—An Examination of the Words 見, 象, 像, 相 found in the Zimen jingxun 緇門警訓

An, Jae-cheol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Every Chinese character has undergone many changes since its creation, in form, sound and meaning. In spite of this, people who translate Classical Chinese Buddhist texts today often commit errors by referring to dictionaries which contain only the contemporary meanings.

My thesis aims at examining such Chinese characters that appear in Buddhist scriptures as 見 (/jiàn/, /xiàn/), 象 (/xiàng/), 像 (/xiàng/), 相 (/xiāng/, /xiàng/), etc., and how to properly translate these words.

For example, people often translate 見 into ‘to see’ only, but in many cases, it cannot be interpreted as above. There are many other meanings: ‘to understand’, ‘to disclose,’ ‘point of view,’ as an indicator of passive voice when situated before the verb, etc.

Both 見 and 相 have the same meaning of ‘to see’; the former

implies a subjective meaning, depicting a person's eyes on top of their feet, whereas the latter symbolizes an objective meaning, depicting someone who looks at the shape of a tree.

It is easy for people to think of the subject as a thing. In fact, it is not external objects 外境 that are the object of cognition, but rather its 相 that has been accepted and focused in the inner mind. Therefore, I consolidate my treatise like this: 象 is an external object, 像 is the copy of 象, and 相 is an image carried in the mind.

Keywords

the original meaning, the extended meaning, subject, object,
見 (/jiàn/, /xiàn/), 象 (/xiàng/), 像 (/xiàng/), 相 (/xiāng/, /xiàng/)

투고일자 2013.10.6 | 심사일자 2013.11.30 | 게재확정일자 2013.12.3

『해심밀경』에 나타난 공(空)의 밀의(密意)

— 원측(圓測)의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를 중심으로

백진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공(空)·유(有)의 문제를 다루는 유가행과의 숨겨진 전략

III. 존재에 대한 새로운 사색: 삼성(三性)

1. 삼성에 대한 원측의 해석지침

2. 삼성의(三性義)에서 본 일체법(一切法)의 의미

IV. 공(空)의 비밀스런 의미: 삼무성(三無性)

1. 무성에 대한 원측의 해석지침

2. 상무성(相無性)·생무성(生無性)·승의무성(勝義無性)

V. 맺는 말